

#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 긴급회의 열어 만장일치 채택

### “국제사회 통일된 대응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곧바로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발 빠른 공식 대응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12일 만이었으며, 이에 대응해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지 10일 만이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이다. 성명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고 있다.

성명은 또 안보리 이사국이 올해 벌어진 일련의 북한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적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주민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



유엔 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긴급회의를 한 뒤 두 시간여 만에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회의 직후 한총회 한국 차석대사(가운데)와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오른쪽), 벡스 고로 일본 대사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상황에서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시했으며,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도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에는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달 회의의 결과에 맞게 의미 있는 추가 조치를 하는데 이사국들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 대사는 합동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는 “북한은 올해 들어 22번의 도발을 했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일치된 맞대응을 주장했고, 벡스 고로 일본 대사는 안보리 회의장

## 올해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주요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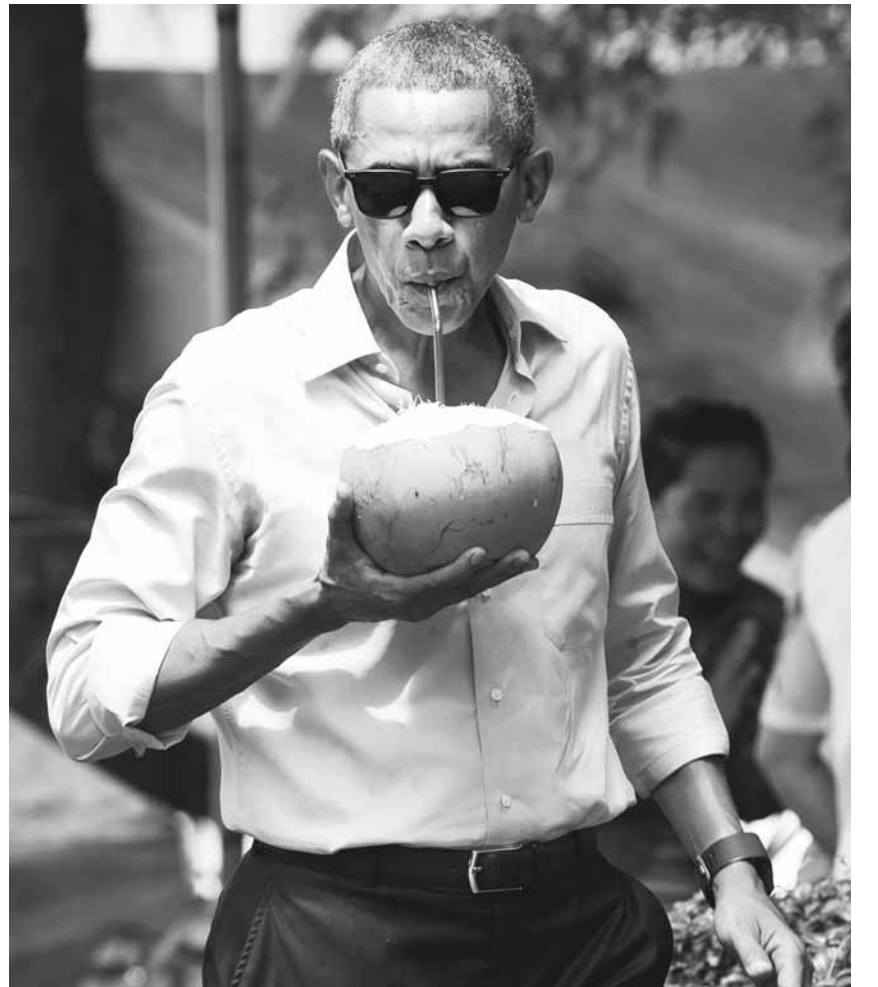
〈미국 현지시간 기준〉

3월 2일	북한 4차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 강력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만장일치 채택
6월 24일	22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15개 이사국 동의 거쳐 강력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
8월 26일	24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언론성명 채택
9월 6일	5일 북한의 ‘노동’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성명 채택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강경했다고 전했다. 한총회 한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북한 주민의 희생을 야기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이었다가 지난달 26일에는 언론성명 발표에 동의했다. /연합뉴스



라오스 간 오바마 “더워엔 코코넛” 7일(현지시간) 라오스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루앙프라방 인근 메콩강 유역에서 코코넛 주스를 마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해 분남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 일본 유권자, 개헌 찬성 42%·반대 25%

### 자위대·국방군 보유 설문

일본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개헌 찬성 세력이 차지한 가운데 유권자도 개헌 찬성파가 반대파보다 훨씬 많다는 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아사히(朝日)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교수 연구실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42%

로 반대(25%)보다 많았다.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는 답은 33%였다. 이는 올해 7월 10일 참의원 선거 당일 NHK가 벌인 투표소 출구조사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 필요없다는 답은 32%를 기록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사히의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복수로 선택하게 했더니 자위대 또는 국방군 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고 집단자위권 보유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49%로 뒤를 이었다.

이들 항목을 헌법에 반영하려면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9조를 개정해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개헌 항목으로 거론하는 긴급사태 관련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은 43%였다.

개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절대 개헌해서는 안 될 항목으로 꼽은 것은 집단자위권 보유가 42%로 가장 많았고 자위대 및 국방군 보유 명시가 38%로 뒤를 이었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개헌 찬성과 중 50%가 자위대 및 국방군 보유 명시를 개헌 항목으로 꼽았고 집단자위권 보유가 4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베 정권이 경제나 사회복지 정책으로 표심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수치를 확인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시한 정책이 연금·의료라고 밝힌 유권자는 33%가 자민당에 투표했고 제야당인 민진당에는 26%만 투표했다. 연금이나 의료 정책 때문에 자민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은 2009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늘었다.

반면 헌법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 유권자의 44%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진당에 표를 던졌고 10%가 자민당을 찍었다. 이번 조사는 참의원 선거 유권자 1776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77%인 1376명이 회신했다. /연합뉴스

## 워싱턴포스트 “힐러리, 선거인단 과반 육박”

### 오하이오 3%P·플로리다 2%P 앞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접전 중인 플로리다 주 한곳만 이기면 11월 대선승리가 무난하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전국 판세 조사가 6일(현지시간) 나왔다.

WP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몽키와 공동으로 8월9일~9월1일 전국 50개 주 유권자 7만4000여 명을 상대로 대선 판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각 20개 주에서 4%포인트 이상 우세를 차지하는 등 외견상 팽팽해 보였다. 10개 주는 경합이었다.

하지만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는 클린턴이 단연 앞섰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취하는 미국 대선전에서 클린턴은 이른바 대형주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아 현재 과반에 육박하는 24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됐다.

과반 270명에 불과 26명 못 미치는 수다. 반면 트럼프는 126명을 얻는 데 그쳤다. 나머지 168명이 걸린 경합 10개 주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 미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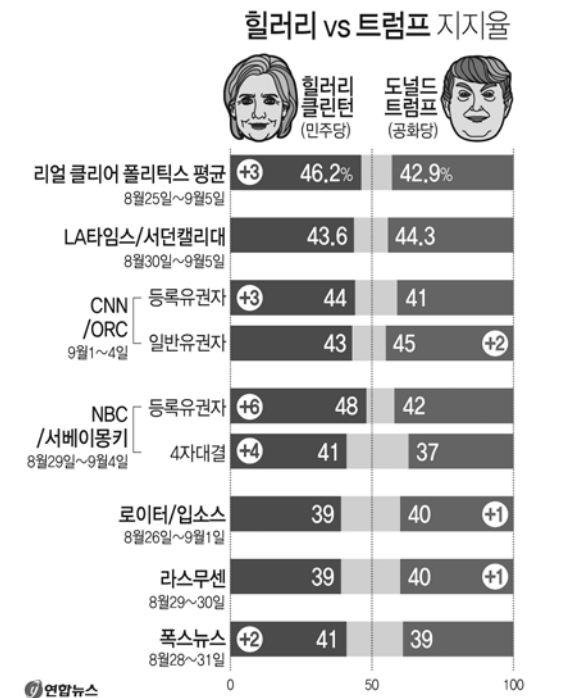
이들 주에서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단순 계산으로 클린턴은 10개 주 가운데 가장 큰 주인 플로리다만 이기면 대선 최종 승자가 된다. 플로리다에 걸린 선거인단은 29명이다. 현재 클린턴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를 46%대 44%로 근소하게 앞섰다.

주별로 보면 클린턴은 트럼프를 캘리포니아에서 57%대 33%, 뉴욕에서 57%대 35%로 크게 눌렀다. 반면 트럼프는 클린턴을 앨라배마에서 57%대 36%, 아칸소에서 54%대 41%, 인디애나에서 52%대 37로 크게 따돌렸다.

3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4% 미만을 엇갈렸다.

클린턴은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에서 각각 2%, 4% 포인트 앞선 반면 트럼프는 오하이오에서 3%포인트 우세를 보였다.

역시 경합주로 꼽히는 버지니아와 콜로라도는 각각 클린턴이 49%대 41%, 46%대 44%로 앞섰지만, 노스캐롤라이나나 46% 동률이었다. WP는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공화당 표를 결집해야 한다”며 “핵심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거나 일부가 클린턴 지지를 선언한 것이 그에게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클린턴은 32개 주에서 90% 이상의 민주당 표를 얻은 반면 트럼프는 단지 13개 주에서만 그랬다.

다만 중서부 ‘리프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트럼프가 선전하는 것은 그의 자유무역반대 메시지가 먹혀든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 12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 평택 토지 전문

▶ 11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 평택 토지 매매

- 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 매가 5억 8천 235만
- ② 평택시 고덕면 동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 (평당 35만)  
▶ 매가 7억 8천 178만
-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 (농림지역)  
도로 물림, 계획관리지역 옆  
▶ 매가 8억 5,250만
- 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번  
▶ 매가 3억 7천 680만
- 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 (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 매가 5억 2천
- ⑥ 평택시 자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지 추천 / 193평  
▶ 매가 12억 6천만

### 경기도 평택시

송탄 소방서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 경기도 화성시

정남 IC 5분 !!  
평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물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전남 영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 ①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토 66평, 건 260평  
6층 상가건물, 상무지구 중심가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9억5천
-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8평  
신창중 정문, 신축건물  
룸 11개 - 월수익 350만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7천
-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입구,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천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 경매 실천 교육 ☆
- 바로 실천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 특수물건, 유치권, 가정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천 경험자 우대, 환영

**062-527-7600**      **010-6834-4800**